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 비평

학과: 한국어언어문화전공

학번: 201620038

이름: 조수영

1. 서론

1.1. 개요

1990년대에 이르러 페미니스트들은 영화를 통해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페미니즘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1991)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인 <피아노>(1993)가 개봉하는 등 영화계에는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영화계 또한 1990년대에 여성 인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9년 여성영상집단 '바리터'의 결성부터 그 시작을 논할 수 있다. 여성주의적 영화 실천을 표방한 '바리터'는 1990년 <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 <우리네 아이들>과 같은 여성과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했다.¹⁾ 이러한 작품들은 경직되어 있던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를 불러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1995년 작인 <개같은 날의 오후>도 이러한 영화계의 분위기에 맞추어 등장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개같은 날의 오후>는 이민용 감독이 연출한 1995년 9월 8일에 개봉한 한국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배경으로 한다. 일전의 한국 페미니즘 영화들이 장르적으로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개같은 날의 오후>는 사회 풍자를 담은 블랙코미디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공하는 영화이다.

1.2.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 줄거리

영화는 40도에 육박하는 100년 만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장미아파트의 주민들이 겪는 일들을 코믹하게 풀어낸다. 지속적인 더위로 인해 주민들은 냉방기와 냉장고 등을 쉼 없이 작동시키고 이로 인해 장미아파트의 변압기는 고장 나고 만다. 폭염 속에서 주민들은 끔찍한 더위를 겪게 되고 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집이 아닌 밖으로 나와 다 같이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평소 남편 성구의 의처증과 상습적인 구타를 견디지 못한 정희는 남편의 벨트를 사용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밖으로 도망친다. 정희가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구는 정희를 따라와 그녀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다. 이에 아파트의 여성 주민들은 성구와 정희를 말리려 하지만 남성 주민들은 남의 가정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며 방관한다. 더위에 의해 과열된 여성 주민들은 성구를 말리는 과정 중에 그를 역으로 집단 구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구는 사망하고 만다. 줄지에 살인범이 되어버린 여성 주민들은 체포하려는 경찰을 피해 옥상으로 도

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3851

씨네2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영상창작집단 바리터, '바리터 30주년의 의미를 말하다'>

망친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려 하였지만, 여성 주민들이 올라오기 전에 자식과 다투어 자살을 마 음먹고 이미 올라와 있던 한 할머니가 옥상에서 투신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할머니 또한 흥 기자의 기사에 의하여 폭력 남편에 맞선 인물로 오인되었고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맞서 농성하 다 투신했다는 기사에 여론이 들끓게 되어 이에 따라 결국 경찰은 강경 진압 방침을 포기하고 주 민들의 옥상 농성이 진행되는 것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다.

2. 본론

2.1. 영화 속 인물들

아파트 단지라는 다세대 주거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영화답게 이 영화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 한다. 남녀 상관없이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나 이야기를 이끄는 중심인물들은 장미아파트의 여 성 주민들이다.

등장하는 여성들은 제각각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정희, 소설가 지망생인 경숙, 영희 엄마, 영희 엄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독신녀 기순, 항상 대 책 회의를 하자며 나서기를 좋아하는 부녀회장 은주 엄마와 은주 엄마의 편을 드는 석이 엄마, 남 편 대신 공국수를 배달하다 사건에 휩쓸리게 된 포항덕과 술집으로 출근하다가 사건에 휘말린 윤 희와 명화, 그리고 정희를 부축하다 올라오게 된 밤무대 가수 유미 등 모두 10명이 주요한 등장인 물들이다.

이러한 여성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 이혼녀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캐릭터들 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스스로 여성이라 성 정체성을 정의하고 여성으로 살고 싶은 유미, 당시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던 이혼녀인 경숙, 접대부인 윤희와 명화 등 이들은 모두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인물들이다.

남성 등장인물들은 전형적인 가부장제 속의 남성의 모습이다. 영화의 주된 반동 인물인 기동대장은 아내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라며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인물이며 정희의 남편인 성구는 정희 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며 폭력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이 외에도 영희 엄마의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자가 일하는 것에 여자는 참견하지 말라 당당히 외치며 포항덕의 남편 또한 남편에 게 힘든 일을 시키려 한다면 역정을 내는 인물이다. 영화는 이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다.

2.2. <개같은 날의 오후>가 관객에게 말하고자 하는 점

영화가 관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민용 감독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과거 여성인권영화제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이민용 감독은 그의 SNS에 '남성인 나는 "어 머니의 아들이며 아내의 남편이며 딸의 아버지며 누이의 형제"라는 진리에 공감하며 가부장제의 덫에 빠져 망해져버린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해질수록 더욱 발전할 것'이라 이야 기한 적이 있다. 그렇기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페미니즘 요소는 단순히 코미디 영화의 전개를 위 한 도구가 아닌 영화의 중심적인 주제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면 주요 인물인 장미아파트 여성 주민들과 작 중 반동 인물인 기동 대장 사이의 갈등, 옥상 농성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화의 주된 배경은 옥상에 한정되며 옥상은 단순한 배경 장치가 아닌 영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속 주된 배경인 옥상이라는 공간은 아이러니한 공간이다. 본래 옥상은 사방이 탁 트여있는 열린 공간이다. 하지만 영화 속 인물들이 농성하는 공간인 옥상은 열려있으면서도 폐쇄된 공간이다. 1990년대의 여성은 군사정권의 해체 이후 민주화라는 정치적 자유를 얻었으나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제 속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 위치에 서지 못하는 반쪽짜리 자유를 누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대 사회 분위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 막아 버린 옥상 문은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옥상은 갈등과 연대의 공간이다. 처음 옥상에 도달한 여성들에게 닥친 상황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이었다. 아파트 아래 마당에서는 기동대장이 강압적으로 여성 주민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영희 엄마와 그녀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기순의 갈등, 자신은 폭행에 동조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경찰에게 자수하러 내려가겠다는 부녀회장 은주 엄마로 인해 옥상은 갈등의 공간이 된다.

여기에 사건의 중심인물인 정희의 침묵, 접대부인 윤희와 명화로 인한 갈등으로 여성 주민들은 반목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같이 고된 상황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성 주민들은 옥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게 되며 종극에는 서로 연대하여 옥상 아래에서 옥상을 향하는 기동대장의 공격에 같이 맞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동대장은 유미가 사실 남성이라는 점을 폭로하며 옥상의 갈등을 다시 조장하려 하나 여성들은 유미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여성이자 동지라는 점을 내세우며 연대한다.

영화 내에서 여성 주민들의 반동 인물이 기동대장이라면 옥상에 반대되는 공간은 아파트의 마당이다. 넓고 탁 트인,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기동대장과 남성 주민들은 여성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여성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간 이후 아파트 마당에는 흥 기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여성이 작품 막바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상징성을 강화한다.

그렇기에 영화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불러온다. 작중 내내 기동대장과 경찰,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아파트의 마당에 옥상에서 농성하던 여성 주민들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몰려들어와 기동대의 대열을 해체하고 그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제야 비로소 웃어 보이며 옥상에서 농성하던 여성 주민들은 바닥에 깔린 에어쿠션을 향해 용감하게 뛰어내리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기동대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들은 스스로 경찰 버스에 탑승한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성 인권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미약할지언정 연대하는 이들은 강하다. 작 중 여성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녀들은 모두 그저 살인범으로 낙인찍힌 채 끝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흩어지는 대신 옥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연대했고 사회에서 소외되던 이들, 멸시받던 이들이 연대하여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파트 밖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며 남성들의 부당한 공격에 저항한다.

단순히 옥상의 농성만이 있었다면 결국 작품 내에서 여성 주민들은 기동대 대신 올라온 진압대에 의해 체포당하는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동지가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여성 주민들은 용기를 얻어 옥상 아래로 몸을 던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결국 모두 연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독은 이런 선한 연대의 힘을 통해 여성 인권의 신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2.3. 영화와 현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작품이라 현재와 많은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작 중 주된 소재였던 가정폭력, 여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분명 30년 전보다는 사회의 의식 수준에 있어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맞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벌어지고 있으며, 여성 차별 문제 또한 존재하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정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할 일로 취급된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등한시되고 있다. 최근 가장 화제에 올랐던 법률을 꼽으라 말하면 연예인 박수홍과 그의 친형 사이의 횡령 문제로 논란이 된 친족상도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²⁾ 이러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적 집안의 모든 가산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가족들을 징계하던 시대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형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작중 주된 소재인 가정폭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2010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 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이라고 답한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의 비율이 17.7%나 되며 사실상 경찰이 가정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³⁾ 이는 가부장제 아래에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라는 낡은 이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차별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는 그 궤를 달리하여 매년 퀴어 축제 등이 벌어지면 반대 시위가 열리며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의식의 미흡함은 작품이 당시 90년대 세태를 풍자했을 때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2.4. 영화에 대한 비판

이 영화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블랙코미디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정, 여성, 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고발하는 작품이다. 당대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았을 때 필요했던 영화였고 그 소임을 다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웃음을 매개로 다양한 인물을 통해 다양한 군상을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이 영화는 한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관객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끌어올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한다.

영화의 완성도 측면에서 <개같은 날의 오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짧은 러닝타임에 비해 캐릭터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8분이라는 길지 않은 러닝타임이지만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나 단점이기도 하다. 인물이 다양한 만큼 이들의 서사가 제각각이다 보니 이야기를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작품 내내 수박 겉핥기식의 담론만 진행된다. 즉 영화의 진행이 너무나도 산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에서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경영, 김민중 배우가 맡은 도둑들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는 등 전체적인 플롯의 난잡함도 이 작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등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2670>

중앙일보, <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04>

여성신문, <“경찰, 여성인권을 공부하라, 제발”>

장인물을 줄이고 인물 하나하나의 서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면 영화의 산만함은 줄고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페미니즘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젠더적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도 이 영화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다. 영화 속 인물들이 영화의 주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억척스러움에 기반한다. 유미가 성 소수자임을 아웃팅 당하는 상황에서마저 섬세하게 감정선을 읽는 것이 아닌 억척스러운 인물들의 언행과 상황 묘사로 해결해 나간다. 이외에도 여성, 특히 아줌마로 칭해지는 중년 여성들은 억척스럽고 거칠다는 젠더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작품 내에 꾸준히 등장하는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여성의 치마 속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극적인 정사 장면과 같은 여성의 섹스어필 요소 또한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표방하지만 불필요한 성적 묘사로 인해 영화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퇴색되고 마는 것이다.

3. 결론

2010년대 중반 이후 젠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젠더 갈등, 혹은 젠더 관련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과도하게 완성도로 공격받고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들 작품에 대하여 혹자는 ‘불필요한 영화’, ‘영화라 부르기 민망한 영화’라며 이러한 영화들이 스크린에 걸리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 논란이 된 작품들을 미학적으로만 따져보면 작위적이고 영화적, 심미적으로 보았을 때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작품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매체가 완벽할 수는 없다. 또한 영화는 심미적인 면모로만 평가받는 장르가 아니다. 유성영화의 태동기부터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가 신랄한 사회 풍자를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듯이 영화는 필요하다면 사회 병폐 고발의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 <개같은 날의 오후> 또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부족한 점도 보이는, 장단점이 명확한 영화이다. 하지만 훗날 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꾸준히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미학적인 완성도와 별개로 영화를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담론이 지속된다는 것은 해당 문제에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가 꾸준히 전달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식의 향상을 이룬다면 멀지 않은 훗날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